

“소원 빈다지만 환경오염” ... 이구아수 폭포서 동전 수거



▲ 이구아수폭포에서 동전 수거 중인 자원봉사자들. 왼 내는 수거한 동전들. 사진=estadao.com.br

남미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이구아수 폭포에서 120kg 이상의 동전이 수거됐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을 나누고 있는 이구아수 폭포 중 브라질 쪽 국립공원에서는 5일 국립공원 직원

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폭포수에 던져진 동전을 수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120kg 이상의 동전이 수거됐다. 수거가 끝나면 양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관리자인 안드레 마사두 프란지니에 따르면 “일부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소원을 비는 의미로 동전을 던지는데, 이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거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자연의 경이인 이구아수 폭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폭포에 던져진 많은 양의 동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해되고, 니켈 및 구리와 같은 중금속이 방출되며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 그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물새들이 동전을 먹이로 착각해 먹는 경우도 발생한다. 현장에서 수거된 동전은 국립공원 환경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내비 따라갔다가 ‘퐁당’

내비게이션에 장착된 위성항법장치(GPS) 안내를 따라가던 관광객의 차가 한 달만에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바닷물 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지난 5월 물에 빠진 차량에서 관광객을 구조하는 모습. 사진=uk.sports.com

지난달 31일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주로 소형 보트 정박 전용으로 쓰이는 하와이 카일루아코나의 호노코하우 항구에서 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GPS에 따라 운전하다 항구 물 속으로 빠졌다. 해당 항구는 지난달 초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운전자는 경찰에 차량 내비게이션의 GPS 안내를 따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현지 언론은 근처 보트에 탄 구경꾼이 운전자를 구조

코하우 항구에 빠졌다. 사건을 목격해 영상을 촬영한 크리스티 허친슨은 인터뷰를 통해 “자동차가 꽤 빠른 속도로 항구를 향해 곧장 달려갔다.”고 말했다.

하와이 경찰국은 두 차례의 차량 침수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했으며 차도 물 밖으로 끌려냈다고 밝혔다.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비게이션 GPS가 왜 이 운전자를 항구 안으로 인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된 바가 없다.

지난 5월 초에도 같은 항구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 쌍의 관광객이 쥐가오리 관광을 위해 내비게이션 GPS에 따라 운전하다 호노

“오리? 쥐!” 중국 대학 급식 이물질 논란



▲ 구내식당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사진=singtaousa.com

중국의 한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대한 학교 측의 해명이 사안 은폐를 위한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 1일 장시성 난창의 한 직업대학 학생이 올린 동영상이었다. 이 학생은 “학교 구내식당에서 배식한 음식에서 쥐의 머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영상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이슈가 되자 학교 측은 이를 뒤 “이물질이 아니라 오리의 목으로 만든 정상적인 음식물로 확인됐다.”며 “영상을 올린 학생도 수감해 해명서를 제출했고,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오리의 목이 아니다” 라거나 “이빨이 나 있는데 오리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쥐를 가리켜 오리라고 한다”는 조롱도 나왔다.

이와 관련, 30여년간 설치류를 연구했다는 한 전문가는 “해당 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쥐의 머리가 맞다.”며 “오리의 목이라면 이빨로 보이는 물질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의 해명이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사안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으로 번지자 현지 당국은 “정밀 검증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엄중하게 공개하겠다.”고 한 발했다.

Kyung Sook Yu, D.D.S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